

# 조선후기 『鍼灸經驗方』의 비판과 수용

– 판본조사와 手抄 내용을 중심으로 –

오준호\*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鍼灸經驗方』 筆寫本      |
|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 4.1 특징적인 형태를 취한 경우  |
| 3. 『鍼灸經驗方』 刊印本 | 4.2 내용을 추가하여 덧붙인 경우 |
| 3.1 20字甲本      | 4.3 諺解本             |
| 3.2 20字乙本      | 5. 맷음말              |
| 3.3 17字戊申字本    |                     |

## 국문초록

한국 전통의학의 치료수단을 크게 분류한다면 약재를 사용하는 방법과 침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의학서적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오늘날에도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시술 방법이다.

필자는 『鍼灸經驗方』 이후 조선의 침구 의가들의 학술적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조선의 대표적인 전문 침구학 서적인 『鍼灸經驗方』(1644)

\*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의 판본을 조사하고, 각 판본 혹은 필사본에 소장자 혹은 필사자가 덧붙여 놓은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 필기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는 허임 이후 의가들이 『鍼灸經驗方』에 대해 추가하거나 보완해야한다고 생각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의가들이 『鍼灸經驗方』의 의학지식을 어떻게 비판하고 수용하였는지 엿볼 수 있다.

『鍼灸經驗方』刊印本의 경우 20字甲本, 20字乙本, 17字戊申字本 3가지가 있었다. 20字 甲本은 初版本으로 추정되며, 20字乙本은 1721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字戊申字本은 금속활자본으로 형태상 18세기 초중반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간행본에는 소장자가 자신의 의학경험을 추가로 필사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다.

필사본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형태적으로 구분해 보면 원문의 내용과 형태에 충실한 경우와 휴대성과 활용성을 추구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내용적인 면에서 구분해 보면 병증 관련 지식이 추가된 경우, 진단 관련 지식이 추가된 경우, 경혈 및 경맥유주가 추가된 경우, 새로운 침법이 추가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經穴 및 經脈流注와 관련된 내용과 運氣鍼法과 관련된 내용은 주목할 만한다. 경혈 및 경맥유주가 간략한 것은 『鍼灸經驗方』의 저술 기조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후대 의가들은 이를 보충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子午流注針法과 靈龜八法에 관한 내용은 침구학에 대한 학문적 견해차이로 생겨난 부분으로, 이를 통해 조선 중기 운기침법에 대한 반대가 조선 후기 운기침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조선 후기 운기침법에 대한 연구가 그 이후 舍岩鍼法, 藏珍鍼法과 같은 새로운 침법 이론을 이끌었다고 조망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許任, 『鍼灸經驗方』, 한국전통의학, 침구학, 의사학, 판본

## 1. 머리말

한국 傳統醫學의 치료수단을 크게 분류한다면 藥材를 사용하는 방법과 鍼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의학서적들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오늘날에도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시술 방법이다. 조선에서 간행된 醫書들을 보면, 약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적들은 꾸준히 간행되고 있는 반면, 침구학을 전문적으로 다룬 의서들은 『鍼灸經驗方』 이후 특별한 足跡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약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대중에게 침뜸이 매우 중요한 치료 수단이었다는 사실과 다소 모순된다.<sup>1)</sup>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약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활용하는 鄉藥, 單方, 簡易方 등이 발전해 나갔다.<sup>2)</sup> 침구기법 역시 이런 이유로 상당히 다양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였을 것

1) 이러한 정황은 『鍼灸經驗方』跋文에 설명되어 있다. “증상을 살펴 효과를 내는 것은 약과 약선(藥膳)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소의 오줌과 말의 똥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비축해 두지 않으면 갖추어 놓기 어려운데 금석이나 단사를 촌구석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하물며 한번 복용할만한 약재를 미리 준비해 들 수 있겠는가. 침과 뜸은 그렇지 않아서 쉽게 구비되고 효과도 매우 빠르다. 夫按証收效, 莫良於藥餌, 而牛溲馬勃, 非素畜則難辦, 金石丹砂, 在僻鄉而何獲, 况一服打疊, 有不可期者耶. 鍼灸則不然, 其具易備, 其效甚速.”(許任, 『鍼灸經驗方』, 한의학 대계 38권, 617~618쪽)

2) 이러한 정황은 『村家救急方』序文에 설명되어 있다. “나는 죄를 짓고 시골에서 살게 되었는데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의방(醫方)과 약서(藥書)들을 많이 구해 가지고 있었다. (중략) 그런데 환자에게 처방을 알려줄 즈음에 생각하여 보니 무슨 탕(湯)이라 하고 무슨 산(散)이라 하고 무슨 원(元)이라 하고 무슨 단(丹)이라 한 것들은 의국(醫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궁벽한 시골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략) 이에 처방이 온전히 기록된 방서들을 다 버리고, 단지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효험이 있는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어 『촌가구급방』이라고 했다.”(余員累居村, 患無已病之醫, 多求得醫方藥書. (中略) 且命之先後, 思之則曰湯曰散曰元曰丹, 醫局所劑, 有非窮村之民所能得者. (中略) 於是, 盡棄全方之書, 只取其民間所易得者, 兼採其出於父老之間見而有效者, 編集一卷, 曰村家救急方)

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문헌 속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鍼灸經驗方』 이후 조선의 침구 의가들의 학술적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鍼灸經驗方』은 조선의 鍼灸醫家인 許任<sup>3)</sup>이 저술한 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鍼灸專門書로 인조 22년 (1644) 4월 간행되었다. 이 책은 간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sup>4)</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필사본들이 전해지고 있다. 필자는『鍼灸經驗方』의 판본을 조사하고, 각 판본 혹은 필사본에 소장자 혹은 필사자가 덧붙여 놓은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 필기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는 허임 이후 의가들이『鍼灸經驗方』에 대해 추가하거나 보완해야한다고 생각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필자는 이 내용들이 당시 의가들의 학술 사상을 대변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의가들이『鍼灸經驗方』의 의학지식을 어떻게 비판하고 수용하였는지 엿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鍼灸經驗方』의 판본에 대한 것으로는 박문현의 연구가 있다. 그는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규장각 소장본을 甲申年(1644년) 초간본으로 추정하였다. 또 戊申字를 이용한 古活字本 및 간행연도가 불분명한 목판본과 필사본이 있다고 하였다. 『鍼灸經驗方』의 해외 판본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일본의 의사 山川淳菴이 조선의『鍼灸經驗方』을 가지고 享保 10년(1725) 간행한 것과, 安永 7년(1778) 간행된 浪華書林 淺野彌兵衛 간행본을 일본의 판본으로 정리

---

(미상, 『(국역)醫方合編』, 〈村家救急方〉, 한국한의학연구원, 2~3쪽)

- 3) 생몰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570년 즈음에 태어나 17세기 중반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 박문현, 「許任『鍼灸經驗方』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하였다. 이 외에 중국에서는 『鍼灸集成』이라는 이름으로 유전되었는데, 清末에 廖潤鴻이 『鍼灸經驗方』, 『東醫寶鑑』 등의 내용을 편집한 서적이라고 밝혔다.<sup>5)</sup>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에서 밝힌 『鍼灸經驗方』 판본

	구분	판형	선행연구자가 밝힌 특징
국내판본	규장각 소장본 (奎492)	목판본	甲申年(1644년) 초간본 추정, 규장각 소재
	규장각 소장본 (奎809)	고활자본	古活字本(戊申字)
	규장각 소장본 (—蒙古615.135)	목판본	간행연도미상
	규장각 소장본 (미상)	목판본 <sup>6)</sup>	간행연도미상, 1책(74장), 25×17.6cm
	규장각 소장본 (미상)	필사본	1책(45장), 21×18cm, 표지명이 '鍼灸方'으로 되어 있음
	譜解本	필사본	三木榮의 기록이 보임
일본판본	享保10년본	-	享保 10년(1725년), 山川淳菴이 반출 大坂吳郎齋書林, 岡田三郎右衛門 간행
	安永7년본	-	安永 7년(1778년) 浪華書林 漢野彌兵衛
중국판본	『鍼灸集成』	-	淸末에 廖潤鴻이 편집본

\* () 안은 소장처 청구기호

본고에서는 국내 주요 기관에 소장된 『鍼灸經驗方』을 직접 조사하여 『鍼灸經驗方』의 판본을 정리함과 동시에 소장자 혹은 필사자의 手抄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침구의가들의 생각을 추론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3단계의 조사 과정을 거쳤다. 1단

5) 박문현, 「許任『鍼灸經驗方』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8~9쪽.

6) 실사결과 615.135-H41c로 목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었다. 필사 양식이 목판본의 판형을 그대로 본뜨고 있어 조사 결과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그림 5-2> 참조.

계에서는 국내에 『鍼灸經驗方』의 소장 상황을 알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구축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경험방’과 ‘허임’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였다.<sup>7)</sup> 2단계에서는 1단계 검색 결과 가운데 『四醫經驗方』, 『痘瘡經驗方』 등 『鍼灸經驗方』과 관계가 없는 서적들을 제외 하여 조사 대상을 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전수조사 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비교적 다수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소장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본고에서는 박문현의 연구에서 언급한 국내판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하였으며, 그가 초판본으로 추정한 규장각 소장본(奎4492)을 ‘20字甲本’으로 지칭하였다. 또 그가 간행연도 미상으로 남겨둔 목판본(一叢古615.135, 미 상본)은 ‘20字乙本’이라고 지칭하였다. 일본판본에서 享保10년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인본(BA古7-60-46)이 소장되어 있으나 이 밖의 일본판본과 중국판본의 경우 국내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서적의 이미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조사로 현장조사를 대신하였다. 또 연세대학교의 경우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소장처 검색시스템으로는 다수의 서적이 검색되어 이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소장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鍼灸經驗方』에 대해 수행된 가장 광범위한 자료조사이며, 그 판본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하고 아울러 침구학에 대한 조선 후기 의가들의 학술 견해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7)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검색일 : 2010. 8. 1.)

〈표 2〉 『鍼灸經驗方』 국내 소장 상황 및 조사 과정

소장기관	표제	판종		조사방법	비고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鍼灸經驗方	木板本	(이)615.3209-허임ㅊ	현장조사	20字乙本
	鍼灸經驗方	木板本	(고)615.3209-허임ㅊ	현장조사	20字乙本
	鍼灸經驗方	筆寫本	(고)615.321-침구경	현장조사	-
	鍼灸經驗方	筆寫本	(고)615.321-침구경ㅎ	현장조사	-
고려대학교 도서관	鍼灸經驗方	木板本	화산C6-A43C	현장조사	20字乙本
	鍼灸經驗方	筆寫本	대학원C6-A43-1-2	현장조사	-
	鍼灸經驗方	筆寫本	화산C6-A43B	현장조사	-
	經驗方鍼灸法	筆寫本	경화당小-31	현장조사	-
	鍼灸經驗方	筆寫本	만송C6-A43	현장조사	-
	鍼灸經驗方	筆寫本	경화당C6-A43A	현장조사	-
국립중앙도서관	鍼灸經驗方	木板本	BC古朝68-75	온라인조사	20字乙本
	鍼灸經驗方	筆寫本	BC古朝68-110	온라인조사	-
	鍼灸經驗方	筆寫本	BA768-5	온라인조사	-
	鍼灸經驗方	影印本	BA古7-60-46	온라인조사	享保10年本 日本杏雨書屋
	鍼灸經驗方	影印本	BA768-16	온라인조사	소장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鍼灸經驗方	木板本	奎4492	현장조사	20字甲本
			奎4493	현장조사	
			奎6797	현장조사	
	鍼灸經驗方	木板本	615.135-H41ca	현장조사	20字乙本
	鍼灸經驗方	金屬活字本 (戊申字)	奎809	현장조사	17字戊申字本
	鍼灸經驗方	筆寫本	615.135-H41c	현장조사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鍼灸經驗方	筆寫本	CL615.6-허임-침	현장조사	-
영남대학교 도서관	鍼灸經驗方	筆寫本	古南519.9-침구경	현장조사	-
	許任集	筆寫本	古繩519 허임집	현장조사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학자료실	鍼灸經驗方	木板本	고서(I) 615.89 허임 침-판	현장조사	20字甲本
	鍼灸經驗方	筆寫本	고서(II) 619.7 2	현장조사	-
	鍼灸經驗方	筆寫本	고서(III) 2889 0	현장조사	-
	鍼灸經驗方	筆寫本	고서(I) 615.89 허임 침-필	현장조사	-
경기대학교 도서관	鍼灸經驗	筆寫本	경기-K105550	미열람	-
경상대학교 도서관	針灸經驗	木板本	C7-허69ㅊ	미열람	-
대구기톨릭대학교 도서관	鍼灸經驗方	미상	동519.9-허69ㅊ	미열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鍼灸經驗方	筆寫本	D616.82	미열람	-
동아대학교 도서관	鍼灸經驗方	미상	(3):5-44	미열람	-
성암고서박물관 자료실	鍼灸經驗方	木板本	성암-541	미열람	-
용인대학교 중앙도서관	鍼灸經驗方	筆寫本	고C6-19	미열람	-

### 3. 『鍼灸經驗方』 刊印本

#### 3.1 20字甲本

20字甲本은 목판본으로서 규장각 소장본(奎4492,奎4493,奎6797)과 연세대학교 소장본(고서(I) 615.89 허임 침-판)이 있다.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한국의학대계에 축소 영인되어 있다. 三木榮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이 판본을 초간본으로 보았으나,<sup>8)</sup> 이를 뒷받침할만한 분명한 근거는 없다. 이들 서적들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소장자의 필기가 전혀 없었다.

#### 3.2 20字乙本

20字乙本 역시 목판본으로 규장각 소장본(615.135-H41ca),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BC古朝68-75), 계명대학교 소장본((이)615.3209-허임乙, (고)615.3209-허임丙), 고려대학교 소장본(화산C6-A43C)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의미 있는 소장자의 필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규장각 소장본(615.135-H41ca)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書眉에 소장자의 加筆이 약간 추가 되어 있다. 우선 「十二經抄穴」에는 原書에서 다루지 않은 經穴 가운데 참고할만한 것들을 베껴 놓았다. 手陽明大腸經의 巨骨·手三里·肘髎, 足陽明胃經의 下關 등이 그 것이다(<그림 1-1>참조). 다음으로 임상에서 효과를 본 처방을 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手掌熱'<sup>9)</sup> 부분에는 "無不效驗"이라고 소장자의 의료 경험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침구 처방을 추가해 놓았다. 癲癇 치법 상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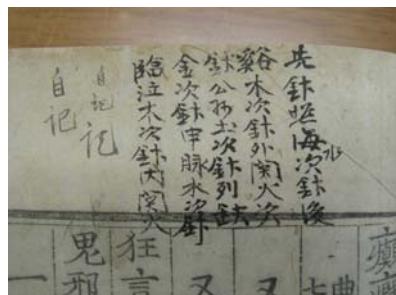
8) 三木榮, (增修版)『朝鮮醫書誌』(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109~110쪽.

9) "수장열에는 내관 열결 곡지 통리 신문 후계 등을 사용한다. 手掌熱, 內關 列缺 曲池 通里 神門 後谿."(許任, 위의 책, 538쪽).

보면 “먼저 조해에 침을 놓고, 다음으로 후계, 그 다음으로 외관, 그 다음으로 공손, 그 다음으로 열결, 그 다음으로 신맥, 그 다음으로 임읍, 그 다음으로 외관에 침을 놓는다.”<sup>10)</sup>라는 치법이 附記되어 있다(〈그림 1-2〉참조). 여기에 사용된 經穴들은 모두 八脈交會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서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소장자 자신이 창안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소장자의 가필이 임상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효과를 인정하여 필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十二經抄穴」 추가 經穴



〈그림 1-2〉 癲癇 鍼法

##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BC古朝68-7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소장자의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었다. 우선, 규장각 소장본에 癰癇에 대한 침법이 있었다면 본서에는 소장자가 ‘瘡針穴’이라고 밝혀 놓은 학질 침법이 필사되어 있었다. 「瘡疾」 상단에는 다음과 같이 이 기법을 설명하였다(〈그림 2-1〉참조).

瘡針穴. 甲足臨泣, 乙太衝, 丙後谿與神門, 戊己衝陽與大都, 庚辛三間與太淵, 壬癸申脈與照海, 治瘡神方, 異人傳.

10) “先鍼照海水, 次鍼後谿木, 次鍼外關火, 次鍼公孫土, 次鍼列缺金, 次鍼申脈水, 次鍼臨泣木, 次鍼內關火.”

이 방법은 瘡疾이 발생하는 날의 天干을 기준으로 選穴하여 刺鍼하는 것으로, “학질을 치료하는 신통한 처방으로 異人이 전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原書에 없는 내용을 따로 가필한 만큼, 소장자가 즐겨 사용하였거나 당시에 유행하던 방법으로 보인다.

瘡針穴에 대한 내용은 「十二經抄穴」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해당 경혈 위에 아래와 같이 필사되어 있다.

庚辛得痞針此. (肺經, 太淵)

庚辛穴治痞. 庚辛日得痞, 所針此穴神妙. (大腸經, 三間)

戊己穴治痞. (胃經, 衝陽)

戊己穴治痞. (脾經, 大都)

▣(丙)丁痞穴治痞 (心經, 神門)

丙丁穴治痞 (小腸經, 後谿)

壬癸穴治痞 (膀胱經, 申脈)

壬癸穴治痞 (腎經, 照海)

▣▣(甲乙)穴(足). 甲日得痞, 所針此穴 (膽經, 足臨泣)

甲穴治痞 (肝經, 太衝)

\* ()안은 이해를 돋기 위해 筆寫 되어 있는 經穴을 저자가 부연한 것임

瘡針穴은 八脈交會穴과 유사한 면이 많다. 본서의 九宮圖에 적혀 있는 八脈交會穴의 八卦 배속을 참고하면 瘡針穴이 八脈交會穴에서 단초를 얻어 만들 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2-2〉참조). 다만 八脈交會穴과 비교해 보면 內關과 外關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肺經에서 列缺 대신 太淵가 사용되었고 脾經에서 公孫 대신 大都가 사용되었다. 또 八脈交會穴이 없는 經脈의 경우 原穴을 사용하였고, 大腸經의 경우에만 腎穴인 三間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列缺과 太淵, 公孫과 大都는 모두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경혈들로 상관성이 높다. 瘡針穴의 내용을 八脈交會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이 방법이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면서 보완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瘡針穴이 임상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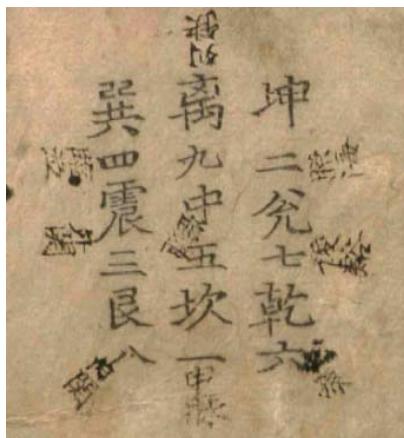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본서 말미에는 小兒 痘疹에 대한 처방들이 실려 있다(〈그림 2-3〉참조). 이 내용은 『鍼灸經驗方』의 본래 내용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가필된 내용이 소장자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소장자는 小兒 痘疹을 빈번히 치료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장자가 필사해 놓은 두진 처방들은 다음과 같다.

升麻葛根湯, 參蘇飲, 加味敗毒散, 紅錦散, 加味六一散, 薄荷湯, 神解湯, 化毒湯, 保元湯, 化毒四物湯, 如聖飲, 加味犀角消毒飲, 神功散, 內托散, 擦牙散, 解毒疏風散, 木香理中湯, 消風散, 消毒飲, 四聖回天湯, 莎貞補氣湯



〈그림 2-1〉 瘡針穴



〈그림 2-2〉 九宮圖의 八脈交會穴



〈그림 2-3〉 小兒 痘疹 처방

## 3) 계명대학교 소장본((이)615.3209-허임 夭)

계명대학교 소장본은 목판의 내용이 군데군데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 누락 부분을 소장자가 필사하여 채워 넣었다. 본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본문의 첫머리에 몇 가지 圖象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속표지 위치에는 臟腑圖가 있는데(〈그림 3-1〉참조), 형태적으로는 『醫學入門』의 그것과 유사해 보이며 채색이 되어 있다. 다음 장에는 經穴圖가 있는데 전면에는 前面經穴圖가, 후면에는 後面經穴圖가 있다(〈그림 3-2〉〈그림 3-3〉참조). 이는 『鍼經要訣』의 그것과 유사하다. 『鍼經要訣』이 『醫學入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장자가 학문적으로 『醫學入門』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어 鍼灸經驗方序, 이경석의 跋文, 目錄이 이어진다.跋文과 목록 사이에는 크게 “司命經驗 鍼灸妙訣”이라고 적혀 있고 그 위에 “康熙辛丑年丙寅仲冬望日改修補 龍城後人幼學李”라고 덧쓰여 있어 책이 1721년에 改修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4〉참조). 이를 통해 20字乙本이 1721년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림 3-1〉 속표지 뒷면, 臟腑圖



〈그림 3-2〉 前面經穴圖



〈그림 3-3〉 後面經穴圖



〈그림 3-4〉 소장자의 改修記

### 3.3 17字戊申字本

17字戊申字本은 매우 희귀하여 규장각 소장본(奎809)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1)</sup>(〈그림 4-1〉참조) 규장각 소장기에는 戊申字로 기록되어 있다. 戊申字(四鑄甲寅字本)는 세종 16년(1434) 조선에서 3번째로 만들어진 동활자본인 甲寅字 계열의 활자이다. 현종 9년(1663)에 金佐明이 戸曹및 兵曹의 물자와 인력을 이용하여 守禦廳에서 큰활자 66,100여 자와 작은 활자 46,000여 자의 銅活字를 鑄成하였다. 이 활자는 英祖末期까지 백여 년간 사용되어 그 인

11) 현대침구원에서 축소 영인하여 간행한 바 있다. 출판사항은 다음과 같다. 허임, 『原本鍼灸經驗方(全)』(現代鍼灸院, 2006).

본이 매우 많다.<sup>12)</sup> 초기 인본은 內向魚尾에 三葉花紋이 분명하나 후기 인본은 二葉花紋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17字戊申字本은 후기 인본으로 18세기 초중반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鍼灸經驗方』 초간으로부터 최소 20년, 후기 간본임을 인정하면 약 60~70년 이후에 간행된 것이다.

三木榮은 이 판본을 湖南觀察使에 의해 만들어진 全州版이라고 보았고<sup>13)</sup> 崔秀漢 역시 이 판본을 ‘甲申湖南活字大本’이라고 명명하고 동일한 견해를 밝혔다.<sup>14)</sup> 또 전중양은 『승정원일기』에 있는 숙종 24년(1698) 『鍼灸經驗方』의 진상 기록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판본으로 보았다.<sup>15)</sup>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모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설정이다.



〈그림 4-1〉 20字甲本, 乙本, 17字本의 비교

12) 천혜봉, 『한국서지학』(민음사, 2006), 312쪽.

13) 三木榮, 앞의 책, 109쪽.

14) 崔秀漢, 『朝鮮医籍通考』(中國中医藥出版社, 1996), 92~93쪽.

15) 손중양, 『조선 침뜸이 으뜸이라』(허임기념사업회, 2010), 237~238쪽.

## 4. 『鍼灸經驗方』 筆寫本

『鍼灸經驗方』은 그 영향력 만큼이나 많은 필사본들이 전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鍼灸經驗方』 필사본을 형태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4.1 특징적인 형태를 취한 경우

#### 4.1.1 원문의 내용과 형태에 충실한 경우

『鍼灸經驗方』의 필사본 가운데에는 형태적으로 목판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다. 규장각 소장본(615.135-H41c)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책의 경우 언듯 보면 목판본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정교함을 보여준다(〈그림 5-1〉〈그림 5-2〉참조).



〈그림 5-1〉 20字乙本과의 비교 (序文)



〈그림 5-2〉 20字乙本과의 비교 (手掌圖)

이 필사본은 20字本을 형태까지 그대로 옮겨 놓았다. 다만 책 말미에는 「十二經抄穴」에서 다루지 않은 경혈들을 추가해 놓았다. 足陽明胃經에는 人迎·地倉·頬車를, 足太陽膀胱經에는 承筋·合陽·率客[谷]·斷交·至陽·命門을, 任脈에는 上腕·僕參·天柱를, (膽經 이하에는 누락되어 확인 불가) 督脈에는 總會·懸樞·天突을 추가하였다. 이 부분에는 경혈과 경락의 소속에 오류가 있는데, 본래 率谷은 膽經, 斷交·至陽·命門은 督脈, 僕參·天柱는 膀胱經, 天突은 任脈의 경혈이다.

이렇게 원문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필사된 서적들은 선물용이나 상업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4.1.2 휴대성과 활용성을 추구한 경우

『鍼灸經驗方』의 경우 작고 긴 장방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袖珍本 형태의 필사본들도 있었다. 고려대 소장본(대학원 C6-A43-1-2)의 경우 가로 10.8~11.5Cm, 세로 22.3~23Cm의 크기로 製冊되었다(〈그림 6-1〉참조). 특히 上下 2권 2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대에 새로 改修한 흔적인지 내용상으로 下卷에는 『鍼灸經驗方』의 序文부터 霍亂門까지의 내용이, 上卷에는 『鍼灸經

『驗方』의 瘡疾門부터 跋文까지의 내용이 뒤바뀌어 실려 있었다. 상권 뒷표지에 “己亥七月日”, 하권 뒷표지에 “己亥壬申” 등 소장자가 필사 시기 혹은 소장 시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있었으나 자세히 살피면 수는 없었다. 본서는 휴대를 고려하여 작고 날렵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鍼灸經驗方』의 내용을 비교적 가감없이 충실히 조록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6-1〉袖珍本 외형

또 다른 고려대 소장본(경화당 小-31)은 휴대성을 극대화한 필사본이다. 본서는 크기가 가로 7.0Cm, 세로 13.6Cm에 불과하며, 병풍 형태의 折牒裝으로 만들어졌다(〈그림 7-1〉참조). 표제는 ‘經驗方鍼灸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침장의 특성을 살려 앞면에는 경험 약처방을 필사해 놓았고, 뒷면에는 침구법을 적어 놓았다.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일부 내용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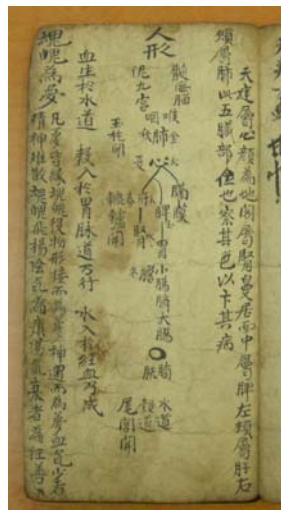
침구법 내용은 대부분 『鍼灸經驗方』의 것으로, 표지 뒤에는 “目屬肝經”的 내용으로 시작하여 別穴, 頭面部 등의 내용이 이어진다. 중간에는 『東醫寶鑑』에서 가져온 唐瘡, 身形臟腑圖, 魂魄爲夢, 聲音出於腎, 肺主聲爲語, 身中真液, 精爲身本, 氣爲精神, 神爲一身之主, 瘡疾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身形臟腑圖는 『東醫寶鑑』의 인체 도상에서 논리적 구조만을 본따 개념화하여 그려 넣은 것이다(〈그림 7-2〉참조). 신형장부도가 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진본 서적에 적어 놓았다는 점, 그림을 매우 개념적으로 요약해 놓았다는 점을 통해 필사자가 『東醫寶鑑』의 의학 이론에 밝은 이였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책의 내용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여 그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진료에 유용한 침처방과 약처방을 앞뒤로 적어 수진본을 꾸몄다는 점, 『東醫寶鑑』의 내용을 침법 부분에 삽입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적은 분량의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東醫寶鑑』의 의학적 이론, 경험방의 약처방 지식, 『鍼灸經驗方』의 침구 치료 지식을 한 데 집적하려고 하였다.



〈그림 7-1〉 折牒裝 외형



〈그림 7-2〉 身形臟腑圖

## 4.2 내용을 추가하여 덧붙인 경우

### 4.2.1 병증 관련 지식이 추가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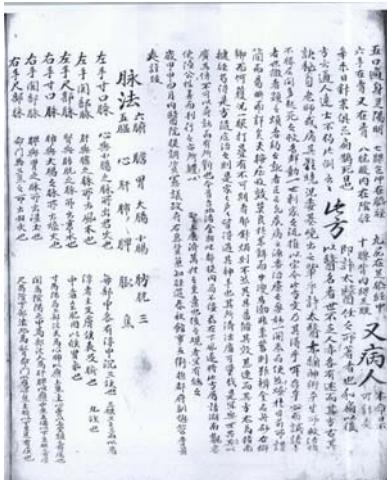
숙명여대 소장본(CL615.6-허임-침)의 경우 몇가지 질환에 대한 설명을 권밀에 덧붙여 놓았다. 구체적으로는 肺癰形證(5언절구), 腸癰形證(7언절구), 陰腫臀腫形證(7언절구), 五逆證(7언절구) 등의 歌賦가 이것이다.<sup>16)</sup> 필사자는 해당 질환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 4.2.2 진단 관련 지식이 추가된 경우

연세대 소장본(고서(I) 615.89 허임 침-필)에는 脈法과 五臟病證 등 진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덧붙여져 있다. 脈法의 경우 『鍼灸經驗方』에서는 거의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 五臟病證은 五臟 중심의 병증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鍼灸經驗方』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필사자는 이론적인 면 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면에서도 『鍼灸經驗方』을 면밀히 사용하고 있었던 인물로 보인다. 脈法의 경우 “脈法”, “四時脈法”, “脉宜忌”, “九道”으로 나누어 맥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술하였다(<그림8-1>참조). 가장 끝에는 “五臟病症虛實論”을 네 면에 걸쳐 싣고 있는데(<그림8-2>참조), 『仁齋直指方』(1264)의 「五臟病症虛實論」을 필사한 것이다. 특히 五臟病症虛實論라는 論說은 조선의 침구학 전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침구전문서로는 드물게 五臟六腑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싣고 있는 『鍼灸經驗方』의 내용과 잘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오장변증에 주목하였던 조선 침구학의 전통<sup>17)</sup>과도 일맥상통한다.

16) 소장측에서 사진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관련 사진을 첨부하지 못하였다.

17) “오장변증에 주목하였던 조선 침구학의 전통”에 대한 내용은 짧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오준호, 「五臟辨證을 활용한 朝鮮 鍼法 研究」(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그림 8-1〉 脈法



〈그림 8-2〉 五臟病症虛實論

#### 4.2.3 경혈 및 경맥유주가 추가된 경우

연세대 소장본(고서(II) 619.7 2)의 경우, 경혈유주와 진단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許任은 「靈樞」「經脈」에서 경락의 流注와 痘證(是動病, 所生病)에 대한 내용을 五臟六腑 중심의 '屬病'이라는 개념으로 재편하고, 이 내용을 「五臟六腑屬病」에 실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본래 「靈樞」「經脈」에 있던 經脈流注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銅人脈穴針灸圖經』을 참고하라고만 밝혀 놓았다.<sup>18)</sup> 연세대 소장본의 필사자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생략하였다고 판단한 듯하다. 때문에 원문 뒤에 따로 “附十二經絡流注交入之訣”을 통해 십이경맥의 유주에 대한 내용을 补入하였다(〈그림 9-1〉참조).

한편, 필사자는 人迎脈과 氣口脈의 비교를 통해 치료 경맥을 선택하는 방법을 임상에서 즐겨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人迎-氣口 비교 脈法을 “人迎脈”, “氣口脈”이라는 조문으로 덧붙여 놓았다. 이 방법은 『內經』에 등장

18) “臟腑十二經脈氣血經絡, 盡言其處, 詳載銅人經.”(허임, 앞의 책, 474쪽).

하는 여러 가지 맥진법 가운데 하나로 『靈樞』「終始」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그림 9-2〉참조). 마지막으로 “奇經八脈 百病所主”, “日數後天”, “時數先天” 등의 내용들은 灵龜八法을 시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로서, 필사자가 영구 팔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그림 9-3〉참조).



〈그림 9-1〉 附十二經絡流注交入之訣



〈그림 9-2〉 人迎脈과 氣口脈을 이용한 脈診



〈그림 9-3〉 日數後天, 時數先天

고려대 소장본(화산 C6-A43B)의 경우, 장방형( $21.6 \times 11.3\text{Cm}$ )으로 제책되어 있으며 발문을 제외하고 『鍼灸經驗方』 내용 전부를 원문 형식에 충실하여 필사해 놓았다. 휴대성을 고려하면서도 原書의 내용을 보존한 것이다. 본서에는 경혈학 내용이 크게 보충되어 있다. 속표지 뒷면에는 필사자가 직접 그려 넣은 손과 발의 經穴圖가 있다(〈그림 10-1〉참조). 또 『鍼灸經驗方』 내용 뒤에는 경혈학 지식들을 초록해 놓았다. 우선 手太陰肺經에서 督脈, 任脈에 이르는 14경맥의 유주와, 해당 경맥의 소속 경혈의 위치 및 침구법을 적어 놓았다(〈그림 10-2〉참조). 이어 側伏頭部中行凡十一穴, 側頭部左右凡二十六穴, 正面部中行凡六穴, 面部第二行左右凡一十穴, 面部第三行左右凡十一穴, 面部第四行左右凡八穴, 側面部左右凡一十六穴 등 인체 부위를 기준으로 해당 경혈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그림 10-3〉참조) 이를 통해 필사자가 『鍼灸經驗方』의 경혈학 내용에 부족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책에는 改修 정황과 책을 구입한 과정이 적혀 있다. 첫장에는 “光緒十一年乙酉七月初四日末伏庚子蒐葺加衣”라고 되어 있어, 1885년 책을 筆寫 혹은 改修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책 마지막장에 “경진 2월 25일 경자에 책값 4 전을 배문이촌에 사는 박상인에게 주었다. 박상인은 내달 3월 29일 제사를 치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다고 하였다.”<sup>19)</sup>라고 소장자가 책을 산 경위가 적혀 있다.



〈그림 10-1〉 속표지 뒷장 손발그림

19) “庚辰二月二十五日庚子，冊價四箋乙，排門伊村居朴喪人給，朴喪人言，明三月二十九日祭祀當到，故不得不賣用云云。”



〈그림 10-2〉 14經脈의 流注와 經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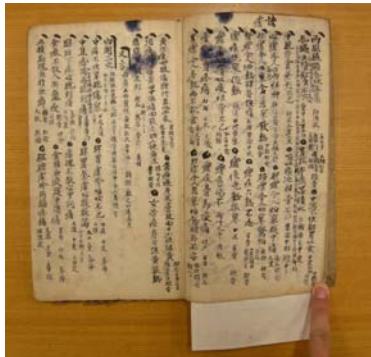
〈그림 10-3〉 僵伏頭部中行凡十一穴

#### 4.2.4 새로운 침법이 추가된 경우

계명대학교 소장본((고) 615.321 침구경 卷)의 경우 소장자를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다. 표지에 “光武十年丙午九月二十七日備匣”, “鍼灸 經驗方 單”이라고 적혀 있어 1906년 소장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속표지 뒷면에는 “丙午元月冊主 金正杜”라고 적혀 있어 책의 소장자를 알 수 있다(〈그림 11-1〉 참조). 이 책에는 다른 서적을 초록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八脈交會穴을 병증에 따라 운용하는 방법을 본문 앞부분에 필사해 놓았다(〈그림 11-2〉참조). 또 책 말미에 있는 허임의 補瀉法과 다른 補瀉法을 별도로 초록해 두었다(〈그림 11-3〉참조). 허임의 보사법은 그의 학술 성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을 만큼 명료하면서도 유용하다. 하지만 필사자는 허임의 방법 이외의 보사법을 실어 다른 견해를 표출하였다.



〈그림 11-1〉 표지 및 속표지 뒷면



〈그림 11-2〉 八脈交會穴 치법



〈그림 11-3〉 補瀉法

고려대 소장본(경화당 C6-A43A)의 경우, 『鍼灸經驗方』의 본문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원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 필사하여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냈다. 권두에는 ‘經絡說’<sup>20)</sup>을 두어 경락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또 내용상 『鍼灸經驗方』의 총론이 끝나는 頭面部 앞에는 ‘手掌井榮(榮)法’, ‘子午新增流注’, ‘靈龜八法’ 등을 추가하였다(〈그림 12-1〉〈그림 12-2〉참조). 아울러 편제를 수정한 부분도 있는데, 『鍼灸經驗方』에서 경혈의 위치를 설명한 「十二經抄穴」를 책 말미로 이동하고, 이어 『醫學入門』에서 채록한 ‘附雜病穴法’, ‘治病要穴’을 부연하였다.

본서는 『鍼灸經驗方』에 『醫學入門』의 침구 지식을 결합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醫學入門』은 한국 전통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서적이나, 그 속의 침구학과 관련된 내용이 運氣와 관련된 것들로서 『鍼灸經驗方』 등 조선 의가들이 추구했던 방향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sup>21)</sup> 책의 필사자는 『鍼灸經驗

20) “經者十二經也。行氣血 通陰陽 以榮身。此十二經中，尊重不係五行所聚乃三焦與心包也。三焦陽氣之父，心包陰氣之母，主受納十二經氣血養育故也。絡者，有十有五，橫絡有絲，一萬八千條絡，不知其紀，絡脈亦傳注周流不息焉。”

21)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 오준호 · 김남일 · 차웅석, 「『醫學入門』을 통해 본 조선 침구학의 특성」,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5권1호, 2009, 55~62쪽.

方』이 다루지 않았던 운기침법의 내용을 『醫學入門』에서 채록함으로써 양자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적인 함의로 볼 때, 본서는 비교적 후대의 저작으로 판단된다.



〈그림 12-1〉 子午新增流注



〈그림 12-2〉 靈龜八法

고려대 소장본(만송 C6-A43)은 『鍼灸經驗方』의 내용과 舍岩鍼法의 내용을 결합한 서적이다. 표제와 속표지에는 『藥石寶鑑』으로 되어 있으나, 권두제에 『鍼灸經驗方』으로 되어 있다. 본서에는 『鍼灸經驗方』의 서문, 목록을 비롯하여 치료 전반의 내용이 충실히 수록되어 있다. 『鍼灸經驗方』 내용에 이어 '舍岩正五行'이라는 제목 아래 서문과 사암침법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그림 13-1〉참조). 책 본문 중에 '進前退後補瀉法'이라는 사암침법의 보사법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손으로 침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보사를 하였는데, 허임이 침의 깊이를 조절하여 보사를 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그림 13-2〉참조). 『鍼灸經驗方』과 舍岩鍼法은 조선 침구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적으로, 필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3-1〉 舍岩正五行



〈그림 13-2〉 進前退後補瀉法, 鍼灸忌日

### 4.3 諺解本

三木榮은 『鍼灸經驗方』 全文이 諺解되어 있는 필사본 언해본을 자신이 소장하고 있다고 하였고<sup>22)</sup>, 崔秀漢 역시 개인 소장의 諺解本의 존재를 언급하였다.<sup>23)</sup> 언해본에 대한 연구<sup>24)</sup>가 수행된 바 있으나, 원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깊이 다루지 못하였다.

## 5. 맷음말

전통의학서적에는 저자의 지식과 견해가 담겨져 있다. 『鍼灸經驗方』 역시 許任의 의학관이 고스란히 반영된 저작이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독서를 통

22) 三木榮, 앞의 책, 109쪽.

23) 崔秀漢, 앞의 책, 92~93쪽.

24) 백두현, 「鍼灸經驗方언해」의 해제와 주해, 『영남학』, 2집, 2002, 143~149쪽.  
백두현, 「이미향, 송지혜, 홍미주. 鍼灸經驗方 주해」, 『영남학』, 2집, 2002, 149~206쪽.

이미향, 「신자료 언해본 『鍼灸經驗方』의 국어학적 고찰」, 『구결학회 국어사자료 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71~91쪽.

해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책의 소장자 혹은 필사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해 놓은 경우가 있다. 조선 후기 침구학의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침구 문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手抄에 주목하였다.

현존하는 『鍼灸經驗方』에는 적지 않은 手抄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가운데에는 소장자 혹은 필사자가 『鍼灸經驗方』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평가해 놓은 부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론들을 추가해 놓은 부분들도 있었다. 이 가운데 經穴 및 經脈流注와 관련된 내용과 運氣鍼法과 관련된 내용은 다수의 서적들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許任은 『鍼灸經驗方』에서 경혈학이나 경맥유주와 관련된 의학 지식을 「十二經抄穴」로 요약해 놓았는데, 가필된 경혈 및 경맥유주에 대한 내용은 후대 의가들이 이를 부족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허임은 正經穴 모두를 신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경혈들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설명하였고, 또 “증상에 맞는 경락을 따라 치료하라.”(各隨其經治之)고 자주 언급하였지만 정작 『鍼灸經驗方』 안에 이에 필요한 경맥유주에 대한 지식을 담지 않았다. 따라서 『鍼灸經驗方』의 치료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鍼灸經驗方』 내에 수록된 경혈학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후대 의가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임의 이런 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東醫寶鑑』(1613)과의 연관성이다. 박문현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 두 책은 침구이론과 임상, 양면에 걸쳐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적 체계를 가지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sup>25)</sup> 『鍼灸經驗方』 간행 당시에 이미 『東醫寶鑑』에서 침구학의 기초 이론을 완성도 높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허임은 자세한 이론적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저작의 저술 동기이다. 허임은 매우 임상적인 견지에서 책을 서술하

25) 박문현, 앞의 논문, 32쪽.

였는데, 그간에 몇몇 연구<sup>26)</sup>를 보면 『鍼灸經驗方』이 의학 이론을 매우 간편하게 정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임은 경혈과 경맥유주에서 임상에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은 대부분 고의적으로 생략했다고 할 수 있다. 『鍼灸經驗方』을 접하는 후대 의가들에게 이런 점이 때때로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이 때문에 소장 혹은 필사 과정에서 이를 내용들을 보충하였을 것이다.

經穴 및 經脈流注에 대한 것이 『鍼灸經驗方』의 저술 기조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면, 子午流注針法과 靈龜八法에 관한 내용은 침구학에 대한 학문적 견해 차이로 생겨난 부분이다. 자오유주침법이나 영구팔법은 조선 중기 이전에 이미 완비된 방법이었으며, 조선 침구학에 많은 영향을 준 『醫學入門』에서 매우 중시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東醫寶鑑』과 『鍼灸經驗方』에서는 모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sup>27)</sup> 적어도 15~17세기 의사들에게 운氣를 기준으로 경혈을 선택하는 이를 방법에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무관심 때문인지 조선 후기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썩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鍼灸經驗方』에 추가된 운기침법 관련 지식들은 運氣鍼法에 대한 조선 후기에 의가들의 관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그간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운기침법에 대한 조선 후기 의가들의 관심은 조선 중기 『鍼灸經驗方』과 조선 후기 舍岩鍼法이나 藏珍鍼法<sup>29)</sup> 등과 같은 조선 고유 침법 사이의 가교 역

26) 오준호 · 차웅석 · 김남일, 「朝鮮 醫書의 中風 鍼灸法 비교」,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5권3호, 2009, 45~51쪽.

오준호 · 차웅석 · 김남일, 「醫書에 나타난 朝鮮鍼灸擇日法의 발전과정」, 『한국의사학회지』 22권2호, 2009, 33~41쪽.

27) 오준호 · 김남일 · 차웅석, 앞의 논문, 55~62쪽.

28) 愚岑 張泰慶(1809~1887)은 그의 저서 『愚岑雜著』에서 子午流注鍼法을 변형시킨 火水未濟鍼法과 靈龜八法을 변형시킨 새로운 침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홍세영 · 안상우, 「『愚岑雜著』에 관한 一考」, 『호남문화연구』, 46집, 2009, 300~308쪽.

할을 해주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運氣鍼法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조선 중기 의가들이 수용하지 않았던 이들 기법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었으며, 이후 시간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자오유주 침법에서 사용하는 五腧穴, 영구팔법에서 사용하는 八脈交會穴만을 조합하는 새로운 방식이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규장각 소장본(615.135-H41ca)의 癲癇 치법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BC古朝68-75) 瘡針穴 치법은 모두 영구팔법에서 사용하는 八脈交會穴을 운용한 방법들이지만 여기에서 運氣에 대한 내용들은 분리되어 빠져 있다.

요컨대, 조선 중기 운기침법에 대한 반대가 조선 후기 운기침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조선 후기 운기침법에 대한 연구가 성숙된 뒤에 다시 運氣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 새로운 침법 이론을 이끌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감사의 글

자료 열람을 도와주신 각 소장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투고일 : 2011년 10월 20일	■ 심사일 : 1차 2011년 11월 14일 / 2차 2011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7일	

---

29)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藏珍要編』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17권1호, 2010, 159~168쪽.

## 참 고 문 헌

### 〈원전자료〉

許任, 『鍼灸經驗方』, 한의학대계 38권, 여강출판사, 1994.

미상, 『(국역)醫方合編』, 〈村家救急方〉,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 〈연구논저〉

박문현, 「許任『鍼灸經驗方』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백두현, 「이미향, 송지혜, 홍미주. 鍼灸經驗方 주해」, 『영남학』, 2집, 2002.

백두현, 「『鍼灸經驗方언해』의 해제와 주해」, 『영남학』, 2집, 2002.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17권1호, 2010.

오준호, 「五臟辨證을 활용한 朝鮮 鍼法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오준호 · 김남일 · 차웅석, 「『醫學入門』을 통해 본 조선 침구학의 특성」,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5권1호, 2009.

오준호 · 차웅석 · 김남일, 「醫書에 나타난 朝鮮鍼灸擇日法의 발전과정」, 『한국의사학회지』 22권2호, 2009.

오준호 · 차웅석 · 김남일, 「朝鮮 醫書의 中風 鍼灸法 비교」,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5권3호, 2009.

이미향, 「신자료 언해본『鍼灸經驗方』의 국어학적 고찰」, 『구결학회 국어사자료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홍세영 · 안상우, 「『愚岑雜著』에 관한 一考」, 『호남문화연구』, 46집, 2009.

### 〈단행본〉

손중양, 『조선 침뜸이 으뜸이라』, (허임기념사업회, 2010)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三木榮, 『朝鮮醫書誌』(增修版),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崔秀漢, 『朝鮮医籍通考』, (中國中医藥出版社, 1996)

### 〈온라인자료〉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검색일 : 2010. 8. 1.)

## Abstract

---

# Criticism & Acceptance of *'Chimgugyeongheombang' <Acupuncture & Moxibustion Skills Gui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ith a focus on bibliography survey and transcription

OH Junho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When the treatment means of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is roughly classified, it might be divided into the method of using medicinal ingredients and moxibustion.

These two methods have been the main concern of medical books, which are the method of medical procedures representing the traditional medicine in East Asia even until today.

I looked into the printings of '*Chimgugyeongheombang*'(鍼灸經驗方)[1644], the representative book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and the contents added to each printing or manuscript by its holder or transcriber with the aim of tracing what the scientific concern of medical practitioners was in Joseon Dynasty after '*Chimgugyeongheombang*'.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se written contents comprises the contents which, post-Huhim medical practitioners thought, must be added and supplemented to '*Chimgugyeongheombang*', through which I intends to get a sense of how the medical practitioners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criticized and accept

the medical knowledge contained in 'Chimgugyeongheombang.'

There exist three printed books of 'Chimgugyeongheombang' including the first 20-character book, second 20-character book, and Mushin-character book. The first 20-character book is estimated to be a first edition while the second 20-character book was confirmed to be published before 1721. The 17-Mushin-character book printed in metal type is estimated to be printed out in the early-mid 18th century by its physical shape. Also, there exist some parts in these printed books in which their holders transcribed their own medical experiences additionally.

The manuscript books had very diverse forms and contents. Morphologically classified, the representative cases include the one faithful to the contents and form of the original text, and the other pursuing portability and utilizability. Classified in the aspect of contents, they can be divided into the case where the knowledge related the symptoms of a disease was added, the case where the diagnosis-related knowledge was added, the case where meridian points in the body & meridian channels were added, and the case where a new acupunctural method was added.

Among these, the contents related to the meridian points in the body & meridian channels, and '*Aupuncture method using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運氣鍼法) are worthy of notice. The meridian points & channels stemmed from the keynotes of the writing of 'Chimgugyeongheombang', but it was clear that the medical practitioners in later generations tended to supplement those contents.

The contents concerning '*midnight-midday ebb flow acupuncture*'(子午流注針法) and '*eightfold method of the sacred tortoise*'(靈龜八法) were the parts caused by different scientific views on science of acupuncture & moxibustion, through which the opposition to the '*Aupuncture method using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in the mid-period of Joseon Dynasty aroused the concern for the '*Aupuncture method using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in addition, it's possible to take a view that the research work on '*'Aupuncture method using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caused a new theory of acupunctural method to come into being since then.

**Key Words :** Im Heo(許任), ‘Acupuncture & Moxibustion Skills Guide’(鍼灸經驗方),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cupuncture Studies, Medical History, Bibliography